

2018. 11. 4. 주일설교 / 누가복음 9:28-29 /  
이렇게 기도하라 <같은 기도, 다른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화가 중 한 사람이 바로 허영만씨입니다. ‘날아라 슈퍼보드’, ‘타짜’, ‘식객’ 등을 남겼고, 현재 44년째 활동 중입니다. 만화는 유행을 쉽게 탑니다. 그래서 금세 빛났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그런데 허영만씨는 급변하는 만화시장에서도 통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통련할 수 있었을까?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수백명의 틈바구니 속에서, 8년간 문하생 생활을 했습니다. 게다가 만화가 자격시험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공모전으로 데뷔했습니다.

자질만 보면 제일 먼저 그만두어야 했을 자신이 어떻게 통련할 수 있었는가? 돌아보니, 그 수백명과 달랐던 자신의 비결이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첫째,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라. 둘째, 고정관념을 깨라. 셋째, 공부하라. 넷째, 정점이 오기 전에, 유행이 꺾이기 전에, 과감하게 새 길을 가라.”

참 신기하죠? 수백명이 함께 고민하며 그림을 그리고 고민을 나눕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만두는 사람도 나옵니다. 직장에서도 수십명의 동기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같은 곳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체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다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삶에 능력이 임하고 신앙이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도 없고 신앙도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는데, 삶의 결과가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누구는 예뻐하셔서 응답하시고, 누구는 싫어하셔서 거부한 거냐?

사실은 똑같이 기도한 것 같지만, 그 기도의 내용과 모습이 달랐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능력이 임하고 신앙도 자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보겠습니다.

**1. 기도는 뜻을 구하는 것이다 (28-37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은 자신을 도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12명을 세우고, 그들에게는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누가복음 9:28)

예수님은 종종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명은 ‘습관대로 가시나보다’ 생각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산에 오르자, 예상대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습관대로 옆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잡니다.

그런데 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누가복음 9:29-30)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밝아지고, 옷에서 눈부신 광채가 납니다. 이것만 해도 제자들은 놀라워하는데, 잠시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성경에서나 듣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난 겁니다.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때때로 환상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눈앞의 현실로 지치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현실을 넘어서는 꿈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이 기도하던 중에 똑같은 환상을 만납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만났으니, 그것만 해도 이 기도는 성공으로 봐도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제부터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누가복음 9:30-31)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타나서 말을 거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때 모세와 엘리야

는 그것이 맞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확신을 줍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 그러나 우리를 봐. 무덤이 없잖나?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무덤에 있지 않고 결국 하늘에 있을 거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앞길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대화하는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하나?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9:33)

이들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광경을 신기했습니다. 복잡한 세상보다는 여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희가 텐트 3개를 짓겠습니다. 그냥 있으면 안됩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덮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나서, 신기했던 모든 환상이 끝납니다. 제자들은 결국 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산을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환상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서 예수님은 확신을 얻었지만, 제자들은 아쉬움만 얻습니다. 무엇이 달랐던 겁니까? ‘무엇을 구했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은 결국 응답을 받고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만 구한 제자들은 결국 만족이 아닌 아쉬움만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잘 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중에 기적을 체험했다고, 잘 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잘 되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머리 숙인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진짜 기도입니다.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신비로운 것을 본다고, 잘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잘 되는 기도가 됩니다. 때때로 기적, 환상,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도,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 뜻을 구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께 수업을 듣는데, 신기하게도 성적은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어떤 학생은 안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있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때때로 선생님이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농담에도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억하는 학생은 대부분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그러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웃기만 하는 학생은 안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억해야, 기도의 결과도 좋습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것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을 구하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이 먼저 그런 기도자가 되셔서, 응답 받는 인생이 되시고, 이 교회가 먼저 그런 기도를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 2. 마음으로 기도를 완성하라 (38-45절 / 마가복음 9:29)

그렇게 기도를 마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산을 내려갑니다. 한참을 내려가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가 마치 간질처럼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아버지는 옆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종종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뿡니다. 때로는 귀신이 불에도 끌고 가고 물에도 끌고 가서,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크게 호통을 치십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나?” 그리고는 아이를 데려오도록 말씀하십니다. 아이는 예수님께 오면서도 몇 번이나 넘어지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알았기에, 저항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를 거부할 수 없기에, 아이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자 아이가 부들부들 떨더니 혼절합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인도합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아버지의 손을 꼭 잡는 것으로, 소동이 끝납니다.

정신 없는 하루가 끝난 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혼이 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귀신을 한

번에 쫓아냈는데, 저희는 왜 안된 겁니까? 얼마 전에 전도 나갔을 때는 잘 되었는데, 아까는 왜 안된 겁니까?”

그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을 남기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은 너희 힘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뭔가 큰 비결을 기대했던 제자들은 맥이 빠 집니다. 속으로 ‘우리도 기도하는데’ 툭툭거리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제자들이 툭툭거리는 말! ‘우리도 기도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들의 불만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과 저녁에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종종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셨고, 기도문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도 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기도를 안 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스승이 기도 하자고 하니깐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드린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고, 능력도 받지 못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때로는 똑같은 기도문으로 기도했는데, 무엇이 달랐던 겁니까? ‘어떻게 기도했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잘 되려면,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머리 숙인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손 모으고, 눈 감는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진짜 기도입니다. 유명한 기도문을 외운다고, 그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숨만 내쉬어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으라고 합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왜 손을 모으라고 합니까? 마음이 분산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왜 고개를 숙이라고 합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왜 가슴에 손을 모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시간이 되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하니깐, 그저 형식적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부부싸움 후에 하면 독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니깐, 독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완성해야 좋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합시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에 감탄만 하지 말고, 언제든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서 만족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를 완성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와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